

#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그리스도론, 세션 18

## 체계학, 그리스도의 인간성, 증거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그리스도론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18번째 세션, 체계학, 그리스도의 인간성 증명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론, 특히 예수의 인간성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우리 주님의 인간성, 즉 그가 완전해짐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와 함께 히브리서로 들어갑니다.

히브리서에서 유일하게, 성경 전체에서 히브리서만이 세 번이나 이 언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여 온전해졌거나 온전해졌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 히브리서 2장 10절에 나오는데, 시편 8편을  
인용하고 마지막을 말한 후에 시편 8편을 창조 시편, 우리의 시조가 받은  
존귀와 영광, 그리고 그들이 행사한 통치에 대해 말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타락으로 인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즉, 인간입니다(8절).  
그러나 우리는 잠시 천사보다 낮아지신 분, 곧 예수께서 죽음의 고난으로  
인해 영광과 존귀로 면류관을 쓰셨음을 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것이 존재하는 그분께서 많은 아들을 영광으로 인도하심으로써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하시는 것은 합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미는,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하시는 것은 합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아버지가 어떤  
의미에서 아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아들 의 고난과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저는 5, 8, 9절은 건너뛰고, 우리가 그 신비를 어느 정도, 최선을 다해 풀어내려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7:28로 넘어가겠습니다. 26절, 우리가 거룩하고, 죄가 없고,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죄인들과 구별되고, 하늘보다 더 높여진 그런 대제사장을 두는 것이 합당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대제사장들처럼 매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으니,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니, 이는 그가 자기를 드려 한번 영원히 하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지만 맹세의 말씀, 시편 110편 4절,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니라, 아버지께서 다윗의 주님께 말씀하셨으니,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니라. 그러나 율법보다 나중에 온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된 아들을 임명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시편 110편 4절의 맹세의 말씀을 통해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셨고, 이 아들은 영원히 온전케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조금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신이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피터슨, 당신은 확실히 그런 종류의 언어, 즉 완전해지는 것이 예수의 신성과 관련이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여기 주석에서, 그것은 그리스도의 인간성 아래에 있으므로 확실히 그의 인간성과 관련이 있지만, 그래도 그의 인간성은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그는 결코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가 죄가 없다면,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5장 8절과 9절이 우리를 도와줍니다.

5장 5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대제사장이 되려고 자기를 높이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에게 이르신 이로 말미암아 세우심을 입으셨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신 이가 세우셨느니라. 시편 2편을 인용하여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하셨으니 이는 다른 곳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시편 110편 4절,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육신에 계실 때에 큰 부르짖음과 눈물로 간구와 기도를 드리셨으니 이는 그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이시요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으셨느니라. 그가 아들이셨지만 내가 알기로는

그것은 신성한 칭호입니다. 그는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고 온전해지셨으므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칭함을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전하게 되신 것은 그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210절에서 온전하게 되고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합친 것을 기억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요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는 고난을 당하고, 순종을 배우고, 온전하게 됩니다. 또한 겿세마네에서 큰 소리와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며, 하나님께 죽음에서 구원해 달라고 간구했고, 그의 경건함 때문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는 십자가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면하는 것으로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죽음에서 부활함으로써 응답받았습니다. 그것이 그가 죽음에서 구원받은 방식입니다. 그는 아들이었지만(8절)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웠습니다. 아들이 순종을 배우고, 진정한 인간 생활을 경험하고, 날마다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는 고난을 포함하여 순종을 배웠습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고 참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셨지만, 그는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고 완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33세의 나이로 죽게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그의 아들을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서 잉태되어 유아로 태어나게 보내셨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예수께서 완전해졌다는 것은 그의 인간성을 강조합니다. 분명 그의 신성은 완전해질 필요가 없었고, 그의 인간성도 죄가 있었다는 의미에서 완벽해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항상 죄가 없었습니다.

그가 잉태된 순간부터 그는 거룩했고,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것은 그녀를 덮고 그녀에게 오는 영들 때문에 거룩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는 완전해졌습니까? 그는 고통을 겪고 아버지께 순종함으로써 경험 속에서

완전해졌습니다. 저는 제 학생들이 말하듯이 약간의 상상력과 약간의 유머로 예시하고 싶습니다. 아마도, 아들들아, 유머는 거의 없을 테지만, 시도해 보겠습니다.

1세기에 예루살렘 신문이 있었다면, 좋아요, 일자리를 구하는 광고가 있었고, 그 일자리는 세상의 구세주, 인류의 구원자, 신과 인간의 중재자였습니다. 그 직무 설명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을 것입니다. 첫째, 모든 지원자는 신이어야 하며, 다른 사람은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자리 풀은 세 가지로 줄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둘째, 지원자는 구원자, 구세주, 중재자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한 명의 지원자, 즉 인간의 아들이 된 영광의 주님만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예수님이 제 이해에 완전해졌다고 가르치는 구절들의 요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 인류의 구원자, 세상의 구세주에 대한 세 번째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장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33세의 나이에 와서 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을 낳고, 마리아의 자궁에서 인간적 본성을 가지고 잉태되었고, 아기로 태어나고, 자라서 30세에 공적 사역을 시작했고, 아마도 33세 반에, 저는 여기의 정확한 연대기를 모릅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후에 부활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즉, 하느님의 뜻은 그분이 신이 되는 것뿐 아니라, 인간이 되는 것뿐 아니라, 순종적으로, 긍정적으로, 아담이 실패한 곳에서 성공하여 모든 고난과 함께 인간의 삶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할 충분한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는 하느님의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 경탄합니다. 그는 지상 사역을 하시는 동안, 얼마나 오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고 외치십니다. 제가 목사들을 훈련할 때, 저는 그들이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매일 일할 것이기 때문에 얼마 동안 세상에서 일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기독교 학교에 다녔고, 홈스쿨링을 했고, 기독교 대학에 다녔고, 기독교 신학교에 다녔고, 목사가 되었다면, 그는 사람들이 무엇을 겪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사는 것은 힘듭니다. 우리에게도 힘든 일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들과 함께 했을 때 어땠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아, 저는 십자가로 갑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아니,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내 말,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베드로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선하심. 아니면 인자가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배반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들 중 누가 가장 위대한가? 정말인가? 야고보와 요한은 누가 가장 위대한가에 대해 논쟁한다. 다른 열 사람도 나올 것이 없고, 그들은 그들에게 분노한다. 우리가 왕국에서 당신 오른편에 앉을 수 있을까? 내 말씀이여, 얼마나 더 당신과 함께 있어야 할까?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하기 전에, 그의 자격의 일부, 그의 신성한 사역의 필요성의 일부는 우리의 구속자가 될 자격을 갖추기 위해 체험적으로 완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신인(God-man)이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으로서 성공적으로 살아야 했지만,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와우. 오해하지 마세요, 그는 죄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의 진정한 인간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수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46에서 그는 적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너희 중 누가 나의 죄를 깨닫게 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너희를 추천하지 않으며, 나는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 중 누구도 그의 죄를 깨닫게 할 수 없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5:21은 위대한 정당화 본문 중 하나로, 죄인의 영적 은행 계좌에 그리스도의 의가 귀속됨을 암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 못하신 분을 우리를 위해 죄로 만드셨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루터가 위대한 교환을 가르친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을 우리를 위해 죄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어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의 완벽한 의는 우리의 영적 은행 계좌에 전가됩니다.

신은 죄를 모르는 그를 만들었습니다. 신의 아들은 우리가 결코 알 수 없는 유혹을 알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코 죄를 경험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4:15에 따르면, 그는 우리와 똑같은 모든 면에서 시험을 받았지만 죄가 없으시고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는 죄 없는 인간 본성을 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유지하셨습니다. 그의 삶에서 영의 역사를 부인하고 있습니까?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사람, 즉 신인, 즉 신인(神人)의 삶에서 영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21-25에서 이사야 53장을 인용하여 같은 것을 가르칩니다. 베드로전서 2:21-25. 베드로는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노라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21,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받으사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셨음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본입니다. 그분이, 무엇보다도, 우리의 본입니까? 아니요, 그분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시지만, 그분은 주님이시며 구세주로서 우리의 본입니다.

그는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니, 그것이 있고, 그의 입에서 거짓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욕을 당하였을 때에 그는 욕으로 대꾸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고난을 당하였을 때에 그는 위협하지 아니하고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자에게 계속 자신을 맡기셨느니라.

그는 우리 죄를 나무에 자신의 몸으로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죽고 의에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의 상처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는 양같이 길을 잃었으나 이제 너희 영혼의 목자요 감독자에게로 돌아왔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고 이사야가 말하였듯이 그의 입에서 속임수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사야는 그를 나의 의로운 종이라고 부른다고 더 말합니다. 요한 1서는 여러 군데에서 우리 주님의 죄 없음을 공표합니다. 요한 1서 3장은 바로 거기에 두 군데에서 공표합니다.

이미 2장에서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옹호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요한일서 3:5. 죄를 짓는 모든 자, 4절, 또한 불법을 행합니다. 죄는 불법입니다.

너희는 그가 죄를 없애려고 나타났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계속 죄를 짓지 않습니다. 계속 죄를 짓는 사람은 그를 본 적도 없고 그를 아는 적도 없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의로우니, 그가 의로우심과 같으니라. 그는 죄를 알지 못하였고, 의로우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죄 없는 구세주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제 언급한 것에 대해 조금 더 말하면서 예수님의 인간성에 대한 증명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세 군데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서, 제가 항상 말하길, 제가 독창적이라면 조심하고 조심하는 게 낫다고 합니다.

어쨌든, 아마 이보다 더 많은 곳이 있겠지만, 저는 예수님의 인간성이 너무나 극명하고, 제 말이 생생하고, 교회의 깃털을 화나게 한 세 곳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유혹, 성령은 그를 광야로 인도하여 악마의 유혹을 받게 했습니다. 분명 그는 취약하고, 그는 약합니다.

사실 천사들이 개입합니다. 오, 유혹을 돕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를 쫓아냅니다. 40일 40박을 금식한 후, 그는 배가 고팠습니다.

농담이 아니야. 그는 물을 마셨고, 살기 위해 마셔야 했지만, 와. 사탄아, 마지막 유혹을 위해 사라져라, 10절.

기록된 바, 이는 그가 구약을 소개할 때 사용한 말씀입니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마태복음 4:11, 유혹의 기록이 끝날 무렵, 마귀가 그를 떠났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그를 섬겼다. 그것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신인으로서 그는 약했습니다. 예수는 정말로 악마에게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는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요, 그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유혹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4:15에 따르면, 그는 우리가 겪는 모든 종류의 유혹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훌륭한 신자들에 대해 들어봤고,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영화에서 이런 묘사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영화 속의 모든 것을 정당화하지는 않지만, 그가 악마 앞에서 옹드리는 것을 보는 것은 견딜 수 없습니다. 글썄요, 저도 그것을 보고 싶지 않겠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묘사되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악마의 관점에서 악에 대한 진정한 유혹이 있었고 그는 배고팠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는 돌을 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사탄은 정확히, 만약 당신이 신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유혹은 그가 가진 능력, 신성한 능력을 아버지의 뜻 밖에서 사용하라는 것이었고, 그것은 진짜 유혹이었습니다. 그는 배고팠지만, 유혹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사탄에게 아니라고 했고, 우리는 그가 완전하게 된 것, 그의 평생의 순수함의 은인입니다. 우리는 물러서야 합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그가 겪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를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분이 우리가 겪는 모든 면에서 고통을 겪으셨지만,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 종족 중 하나입니다 .

그는 신인(God-man)이며, 그렇기에 그는 우리를 대신해 죽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마태복음 24:36입니다. 아무도 그 시간의 날을 모릅니다 .

나는 웃음을 터뜨리고 싶고, 좋은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정한다는 말을 들으면 토하고 싶다. 그것은 나의 영적인 부리를 끝없이 꼬집어낼 뿐이다. 그것보다 더, 그것은 교회를 해친다.

주님의 간증을 아프게 합니다. 오 , 세상에, 물론 그런 종류의 것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그들은 예수께서 아무도 시간의 날을 모른다고 말씀하셨고, 사람들은 정직하게도 당신이 달과 년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 , 세상에, 그는 정말로 아무도 초, 분, 시간, 일, 주, 월, 년, 10년을 모른다고 말씀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어서, 터무니없습니다.

그런 종류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연구는 창피한 일이고, 그보다 더, 오 세상에,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고 찾아갔고, 한 사람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찾아갔고, 그가 오지 않자, 그들 중 일부는 명예와 수치 문화에 살았기 때문에 자살했고, 그들은 돌아가서 모든 소유물을 준 이웃을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오, 그것은 병적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 날과 시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4:36.

아무도 모르고, 넌 나한테 그걸 주지 않아, 우리는 몇 월인지 알 수 있어. 세상에, 하늘의 천사들도 몰라. 그들은 전지전능하지 않아.

그들은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신은 모든 것을 말하지 않은 듯하고, 아들도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재림의 시간만 압니다. 뭐라고요? 잠깐만요.

컬트는 바로 여기서 돌아다닙니다. 보세요, 보세요, 신은 모든 것을 아시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예수는 모든 것을 아시죠? 아니요. 그러므로 그는 신이 아닙니다.

글쎄요, 처음부터 교회는 이걸 엉뚱하게 다루었어요. 그들은 이걸 감당할 수 없었고, 아버지는 "음, 음, 그는 정말 알았지만 제자들을 위해 그렇게 말했어"라고 말할 거예요. 그건 옳지 않아요.

아니요. 글쎄요, 그가 신이라면 어떻게 이걸 다룰 수 있을까요? 그는 그의 화신에서 능력이 감소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신입니다. 신인으로서 그는 모든 신성한 자질과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의 소유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의 행사를 포기합니다. 즉, 그는 오직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그의 신성한 능력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이유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서 굴욕을 당하셨을 때,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시간을 아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물론, 그는 지금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굴욕의 상태와 영광의 상태의 구별에 기초한 신학적 움직임으로서, 그렇습니다, 그는 지금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의 인간성은 이 무지의 진술에서 생생합니다.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아버지께 복종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십니다. 칼빈이 말했듯이, 그리스도의 인간성은 유대감, 형제애를 형성합니다. 그는 그

단어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교라고 사용했습니다. 바울이 말한 방식은 이렇습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그의 신성은 그를 아버지와 연결한다. 그가 인간이 되어, 진정한 인간 본성을 자신에게 취하여, 신인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 그를 우리와 연결한다. 예수의 인간성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들을 데려가세요, 그는 우리가 이미 본 세 번째 장소입니다. 머물러서 저와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저는 슬픔입니다. 제 영혼은 죽음에 이를 정도로 슬픔입니다.

누가는 그가 피땀을 흘리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26:36~46. 아버지, 당신의 뜻이라면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이 잔은 어떤 잔입니까? 마태복음 25장,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은유적으로 받아 마시는 것을 예견하셨습니다. 즉, 그는 자신의 백성을 대신하여,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는 것을 예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죄스럽게, 죄스럽게가 아니라 그것을 꺼립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대가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신 분, 십자가에서 3시간 동안 아버지 가 돌아서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노래가 말하듯이요.

그는 얼굴을 돌립니다. 아들은 우리가 받을 만한 정죄를 짊어지십니다. 갈라디아서 3:1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심으로써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때때로 큰 열정과 거의 이해심이 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듯이, 그가 다른 존재, 저주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그가 저주받은 사람으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 하지만 결코 별개의 사람은 없습니다.

신인은 저주받은 사람으로 죽었으며, 율법의 저주, 즉 신명기에 선포된 모든 율법 위반자에게 내린 하나님의 형벌 위협을 지냈습니다. 그는 율법 위반자가 아니었지만, 율법 위반자 대신 죽었으며 그 심판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3:25-26,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의 피로 화해 제물로 공개적으로 세우셨고,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벌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화해의 교리로, 오늘날 많은 복음주의자들조차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3:25-26, 히브리서 2:17, 요한일서 2:2, 요한일서 4장, 아마 17장이나 20장일 겁니다.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끔찍하고 고문스러운 육체적 죽음에 대한 전망뿐만 아니라 죄를 지고 당신과 나와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는 전망에 대해서도 반발하셨습니다.

갯세마네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인간성이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난 곳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땅에서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에 기뻐합니다.

완벽성 -완벽성 논의를 다룰 것입니다 . 주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계획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론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8, 체계학, 그리스도의 인간성 증명입니다.